

백영욱 부재관 이사장

많은에게 희망찬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5월을 집중모금 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등의 하나로 100인 기부캠페인을 통해 되는데 단체등의 자여지원등의 마련하는 한편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 등위해 시민참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혜이행사의 기부활동이 제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시민기부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인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현황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경우에서 보면 기업체의 비중 (2006년 기업체기부 72.9%, 개인기부 12.7%, 사회공동기부 10.7%)이 압도적이다. 미국의 유니티드웨이에서 보면 총회수(2003년)을 보면 74.5%가 개인기부, 기업 5.6%, 재단 10.9%, 유한 기부 9.0%로 되어있는데 36배의 편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인들이 개인재산이 아닌 기업의 법인재산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가 가장한 김혜이모금방식으로 사회공익활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소액 다수 기부문화를 이끄러내고 또법적인 모금활동이 유행이다. 지난 4년간 이 줄이기 기부행동에 가담한 인구는 8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기가 기부할뿐만 아니라 권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행동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차이는 기부하는데 남에게 권유하는 것은 권유(영도)로 영도(영도)의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부금의 받고 주장은 모금에 내고 남을 위해 자기의 몫을 내는 것으로 안은 보람을 남에게로 전수 하겠다는에서 행동을 자기것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년도 5월 집중모금 캠페인으로 여러모로 애드레 디로로 우리 2000여명이 한해동안 참여한 100인 기부캠페인에도 어느때보다 다양한 이력자들이 앞장서서 <이비기 후원> 등이 포함되는데 있다.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들 비롯한 여섯째 최고 저로로, 행정부처장관들, 국회의원들, 기업 CEO들, 인기 연예인들, 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선두였다. 이들 중에는 420여명이 후원, 420여명 후원, 31명 후원하는 이력들이 다수였다.

금번 캠페인을 더욱 성대하게 하는데에는 현물기부로 바쳐 개체, 업체들의 소의계층위로 잔치인 입입배출기부, 후원사업을 위한 모금활동, 물품행(나눔), 해바기부, 언론사등의 공동캠페인 그리고 후원된 사회발 기업등의 공동사업약등이 이루어진 것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여기에 힘써주어 한몫을 한 모든분들께 한국여성재단이 되는데 단체들은 물론 재단이 지원을 통해 사회상과 사회를 향유하는 여성들은 감사하고 있다. 해마다 여가대부분의 힘을 모아 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내는 후원회와 기부금의 사회가 기부에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수 있는 매개의 기능을 갖추어 주기 기대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재앙의 씨앗으로 지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길바닥을 전후로한 리더한 역할, 특이한이력 그리고 활동등 문제해결이 되고 전 단하고 있는 현상에서 부재관의 되는데의 여성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거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회공익을 위한 기부문화에서 후원자를 대는 힘이 있고 하는데에 평등되는 사회적행에서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참여모임에 한 몫을 차지한다.

현재대인인 우리는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희망과 행복을 남의 몫을 통해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한 나의 참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연다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137-88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1 국민은행서초동지점5층 TEL:595-6364 FAX:595-6397 womenfund@womenfund.or.kr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께
발 신	한국여성재단 대외협력사업팀 황미영 대리
발 신 일	2006. 6. 19. (월)
제 목	5월집중모금캠페인 및 100인기부릴레이 특별소식지 인사말 청탁의 건
내 용	*2006 5월집중모금캠페인 및 100인기부릴레이 특별소식지를 7월 둘째 주에 발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사장님께 인사말(감사의 글)을 요청 드립니다. *올해의 특색 등 내용은 별첨토록 하겠습니다. *글은 6월 27일(화)까지 주시면 되며, 분량은 A4 1장 정도면 됩니다.
요청사항	
비 고	표지포함 총 7매